

KoNECT NEWS

아시아 최대 국제 임상시험 콘퍼런스 '2017 KIC' 성료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와 미국약물정보학회(Drug Information Association, DIA)가 공동으로 개최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 국제 행사 '2017 KoNECT-DI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inical Trials(이하 KIC)'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 3회 KIC에는 사흘 간 750명 이상의 청중이 참석해 글로벌 임상시험 분야의 최신 이슈와 동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는 각 계의 임상시험 전문가들로 구성된 70여 명의 연자들 중 해외연자만 절반 이상인 36명이 참가하며, 명실공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콘퍼런스임을 입증했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의 축사로 시작을 알린 이번 행사는 2개의 기조연설과 11개의 세션, 4개의 워크숍, 그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해 도래하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실행기반 구축 등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GSK의 캐시 루안(Kathy Rouan) 부사장은 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임상시험의 우선순위 설정과 환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의 내용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이와 함께 다국가 임상시험(MRCTs) 가이드라인 발효에 따른 대응방안, 신약개발 접근 방법론, 임상시험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주제로 강연들이 진행되어 임상시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제들이 공유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임상시험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임상시험을 통해 4기 위선암을 이겨낸 임상시험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임상시험의 필요성과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또한 모잠비크,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의 임상시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임상시험과 관련한 최신 동향 습득과 국내외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받았다.

KoNECT NEWS



한편, 행사 마지막 날인 11월 3일에는 KIC 후속 프로그램으로 '중국 규제 개혁'에 대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최근 규제에 따른 중국의 신약개발에 대한 통찰'을 주제로 중국의 규제 개혁과 환경 변화, 이에 따른 개발자들의 영향 및 의약품 개발에 대한 시사점, 신약 개발 전략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은 "아시아 최대의 임상시험 행사로 자리매김한 KIC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임상 시험 수행 역량과 인프라를 글로벌 시장에서 드높인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임상시험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임상 시험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